



시간제보육

Q & A

Q1 양육수당 수급종인 전업주부입니다. 시간제보육 정부 지원금 신청 별도로 해야 하나요?

A 별도 신청절차는 없습니다. 양육수당을 수급중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지급됩니다.

Q2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적어지나요?

A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.

Q3 시간제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나요?

A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과 분리하여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대 영아3으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.

Q4 다른지역에 있는 시간제보육 이용이 가능한가요?

A 이용 가능합니다. 거주지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
Q5 지원시간인 월80시간을 모두 이용했습니까.

A 그러면 그달은 이용 못하나요?

A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금 (4천원)100%로 결제됩니다.

육아 스트레스는 지금 우리 세대 엄마들이 겪는 보편적이지만 육아에 아주 치명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.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해 버리니까요. 이런 육아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시간제보육 서비스라 생각합니다. 원하는 시간에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어 아이와의 삶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.



시간제보육에 대해 궁금하세요?

P C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(www.childcare.go.kr)

모 바 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

☎ 대표번호 1661-9361

※ 서비스 개시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위험할 땐 119 입겨울 땐 129

설치,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센터



엄마들을 위한 육아 회소식!

시간제 보육



시간제보육이란?

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(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)에서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대상 |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

시간 | 월 ~ 금, 9시 ~ 18시



장소 |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
보육료

※ 시간제보육료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해 지원됩니다.

구 분		내 용
보육료	정부지원금	시간당 3천원
	본인부담금	시간당 1천원
	지원시간	월 80시간

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

회원가입 및 아동등록
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**회원가입**(공인인증서 등록)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**시간제보육 아동등록** 완료 필수
※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.



예 약

- PC/모바일 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- 시간제보육 대표번호: 1661-9361
- 처음 이용할 경우, 아이 적성을 고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하여 예약합니다.
-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등록한 경우, 전화로만 예약 가능합니다.

※ 예약변경 등

- 예약 변경, 취소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(5일전까지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)

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

		서비스 이용 당일			
4일전 3일전	2일전 1일전	예약시간 전	예약시간 내	미이용	초과이용
-1	-2	-3	-4	-5	-7

※ -7점 이상일 경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.
(당월 벌점은 아فل되지 않습니다.)

이 용

운영시간 : 평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
○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.

○ 제출서류

-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확인 후 반환)

○ 준비물 : 기저귀, 여벌옷, 물티슈, 간식 등



결 제

이용할 때마다 **아이행복카드**로 결제



○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
○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합니다.

○ 아이행복카드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.

한때, 아이가 크는 만큼 나의 젊음도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함에 조금이라도 서둘러 펼쳐 보고자 했던 나의 꿈,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였고 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엄마인 내 꿈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.
하지만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좀 더 내 아이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보도록 도와주었고 엄마의 꿈에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.

